

어린 왕자와 영화인들

시네아스트 생텍스

한국에서 생텍스의 영화사적 위치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직업과 도구의 문학으로서 행동주의를 영화로 실천한 시네아스트로서의 그의 존재는 세계 영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소설가로 성공한 생텍스는 레몽 베르나르(Raymond Bernard)를 위해 「안느-마리(Anne-Marie)」(1935)의 시나리오를 썼으며 이어서 피에르 비용(Poerre Billon)의 『남방 우편기(Courrier du Sud)』(1936)를 각색하고 촬영을 도왔다. 독일 침공으로 1940년 드골의 해외 정부와 페탱의 비시 자치 정부에 항의하며 프랑스를 떠나던 생텍스는 피에르 비용에게 「이고르(Igor)」 시놉시스를 맡기며 자기가 돌아오면 함께 영화를 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 영화를 제작하라고 충고하였으나 1944년 7월 31일 지중해 상공에서 격추 당하여 전사하고 만다.

1935년 12월 30일 생텍스는 자신의 자가용 비행기 시문기를 몰고 이집트로 향하던 중 현지 시간 4시 45분 카이로에서 200km 지점, 리비아 사막에 불시착하여 닷새 만에 베두인족에게 구조된다. 사막에서의 구조 과정에서 느낀 절대 고독과 연대감을 서술한 『사람들의 땅』을 영화로 제작하려 한 감독은 위대한 화가 오귀스트 르누아르(Auguste Renoir)의 아들 장 르누아르(Jean Renoir)였다. 장 르누아르는 기성 화단의 구태성에 회의를 느끼고 새로운 영화의 길을 선택하여 『게임의 규칙(Règle du Jeu)』을 발표하였으나 진실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프랑스 관객으로부터 외면당하였다. 하지만 독일 침공으로 피난처로 택한 미국에서 상영된 작품에 열광한 미국 관객은 그를 진정한 영화인으로 추앙하고 있었다. 장 르누아르는 생텍스의 영화적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할리우드로 초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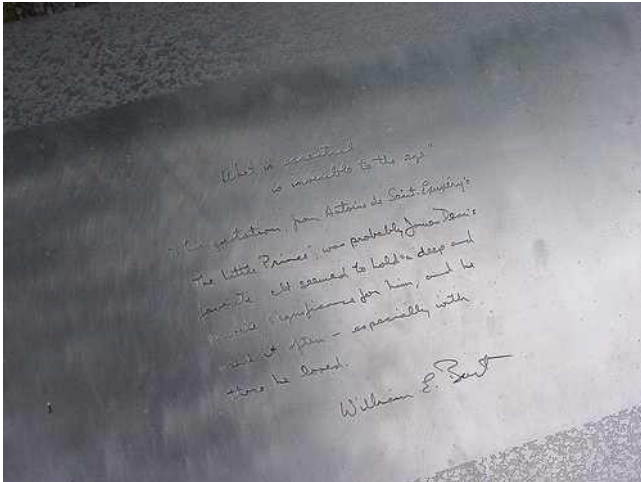
생텍스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고 1941년 자신의 영화 프로젝트를 육성으로 녹음한 레코드를 제작하여 르누아르에게 전하기도 한다. 갈리마르 출판사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영화 제작에 관한 우정 어린 편지와 레코드의 내용을 정리한 글을 한데 모아 1999년 『친애하는 르누아르에게(Cher Renoir)』를 출간하였다. 당시 조종사들의 고난과 동지애를 통해 꺼져 가는 양심의 불꽃들을 살리고 서로 소통시키려는 영화적 시도로서 르누아르가 자기 생애 최대의 걸작으로 여긴 이 영화의 제작은 아쉽게도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만다. 하지만 다행히도 데이빗 셀즈닉 제작, 클라렌스 브라운 감독, 클라크 게이블 주연한 「야간 비행(Vol de Nuit)」(1933, MGM)은 오늘날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하다(<https://www.youtube.com/watch?v=InMAlgLI9dg>).

갈리마르 출판사가 1999년 출간한 생텍스의 『사람들의 땅』 영화 프로젝트 『친애하는 르누아르에게 (Cher Renoir)』 영화 작업을 위해 헐리웃에서 포즈를 취한 르누아르와 생텍스

『어린 왕자』의 영화화 역사

「시민 케인(Citizen Kane)」(1941)으로 프랑스 최고의 거장 르누아르와 함께 영화사를 풍미한 미국의 명감독 오슨 웰스는 위대한 독일 소설가 카프카의 소설을 각색한 「소송(Procès)」을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 전신인 오르세 역에서 촬영할 정도로 유럽 문화에 정통한 시네아스트였다. 그 역시 『사람들의 땅』을 각색하며 그 희열을 친구들에게 쏟아냈고 이어서 『어린 왕자』의 영화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어린 왕자』를 영화화하려는 그의 제안은 월트 디즈니사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시민 케인』에서 오슨 웰스는 이미 어린 왕자의 모험기 형식의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 유명한 ‘로즈버드’ 수수께끼를 따라 케인의 어린 시절을 추적해가는 과정은 마치 『어린 왕자』의 비행사가 어린 왕자의 기원을 풀기 위해 계속 질문을 던지며 그의 죽음을 맞는 것과 유사한 구성을 보인다.

노골적으로 자신이 어린 왕자임을 천명한 배우도 출현하였으니 할리우드 신화 속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우상으로 남은 영화배우 겸 카 레이서 제임스 딘이다. 제임스 딘은 열 살 무렵 생텍스를 직접 만났다고 친구에게 토로한 적도 있다. 『어린 왕자』를 영화화하는 위대한 꿈을 지닌 제임스 딘이었지만 그 꿈은 그가 아끼던 경주용 자동차 포르세(Porsche 550 Spyder)를 몰고 가던 1955년 10월 8일 SR 46 도로에서 처참히 부서져 버렸다. 동료 윌리엄 베스트(William Bast)가 제임스 딘의 무덤에 새긴 어린 왕자의 한 마디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라는 묘비명이 그의 어린 왕자 사랑을 전한다. 제임스 딘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어린 왕자』 구절이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셸램(Cholame)의 제임스 딘 메모리얼 파크 소재 모비명. 윗부분에 “What is essential is invisible to the eye”라고 에칭으로 새긴 구절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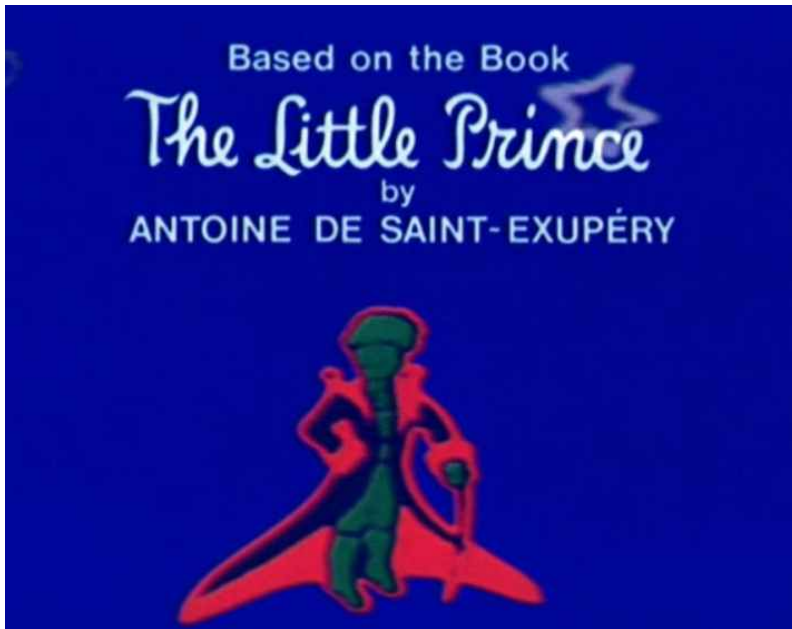
드디어 1967년 『어린 왕자』가 장편 영화로 탄생하게 되니 파라마운트가 제작한 리투아니아 출신 아르나스 제브리누아스(Arūnas Žebriūnas) 감독의 「어린 왕자(Malenki Prints)」가 그것이다. 이 작품은 독특한 분장의 캐릭터들 대화로 구성된 판타지로 오늘날 창작물의 수준에도 전혀 뒤지지 않는 무대 연출과 구성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H_pK9CauGA).



리투아니아 출신 아르나스 제브리누아스 감독의 『어린 왕자』

『어린 왕자』를 영화로 옮기려는 시도 가운데 길들임의 주제를 이미지와 사운드로 잘 살려낸 작품은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 감독 스탠리 도넨(Stanley Donen)의 「어린 왕자(The Little Prince)」(1974)이다. 올드 무비 팬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사랑은 비를 타고」로 한국 시네편들에게 잘 알려진 스탠리 도넨의 「어린 왕자」는 생동감 넘치는 현대적 애니메이션, 시대를 앞서는 안무와 음악, 댄스 역의 발레 댄서 가수 밥 포시(Robert Louis Bob Fosse), 조종사 역의 리처드 켈리(Richard Kelly), 어린 왕자 역의 스티븐 워너(Steven Warner), 여우 역의 진 와일더(Gene Wilder) 등의 명배우 캐스팅으로 세상의 찬사를 크게 받았다. 특히 원작

의 주요 대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어린 왕자와 뱀 그리고 여우의 우정에 근거한 스토리텔링은 원작자 생텍쥐페리 자신도 흡족해했으리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찬사를 받았다.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과 뮤지컬 실사를 합성하여 성인과 아동이 함께 보며 자신의 상상력에 따라 즐길 수 있게 편집된 명작이다. 특히 여우와 뱀을 연기하는 두 명배우의 노래와 춤이 인상적인데 뱀 역을 맡은 밥 포시의 문워크를 마이클 잭슨이 그대로 복원하여 크게 성공하기도 하였다.



스탠리 도년의 「어린 왕자(The Little Prince)」(1974)의 오프닝 크레딧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 원조 밥 포시의 안무. 스탠리 도년의 「어린 왕자(The Little Prince)」(1974)

현대적 감수성으로 부활한 애니메이션 『어린 왕자』

『어린 왕자』의 감동을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부활시키려는 시도도 계속되어 왔다. 이 가운데 『어린 왕자』를 읽고 크게 감동한 드림웍스의 「쿵푸 팬더」 감독 마크 오스본이 원작에 대한 사

량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8년간의 노력 끝에 장편 애니메이션 「어린 왕자」를 재탄생시켰다. 2015년 제68회 칸 국제영화제는 이 작품을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하여 개막작으로 상영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이 영화 개봉에 맞추어 파리를 방문하고 모든 일정에 앞서 프랑스어 버전 「어린 왕자」를 상영 중인 파리 UGC 시테 베르시 극장을 찾았다. 자녀들과 손을 잡고 티켓을 구입한 후 함께 대화를 나누며 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부모들은 우리 학부모들과는 다른 친밀한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었다. 영화의 시작과 함께 소곤소곤 들려오는 질문과 대답은 우리 자녀들과 학부모들과의 대화에서는 들을 수 없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득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는 지금 어떻게 되었나?, 왜 장미와 헤어져야 했나?”라고 물으면, 함께 온 엄마가 친절하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고 아이의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진다. 영화 감상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오가는 프랑스어 질문과 대답은 오히려 영화의 사운드처럼 녹아들어 영화의 한 구성 요소로 여겨졌다.



비행사와 어린왕자, 마크 오스본 감독의 장편 애니메이션 「어린 왕자(le Petit Prince)」(2015)



어린 왕자와 여우와 소녀, 마크 오스본 감독의 장편 애니메이션 「어린 왕자(le Petit Prince)」(2015)

장 르누아르, 오슨 웰스, 마크 오스본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영화의 거장들이 『어린 왕자』를

영화화해 왔다. 273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2억 부 이상의 판매 부수를 올린 20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어린 왕자』는 매번 그 시대의 영화 기술로 새롭게 부활할 것이다. 타르콥스키가 『봉인된 시간(Le Temps scellé)』(1986)에서 말하듯 영화와 문학은 생산적인 관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해온 듯하지만, 실상 이 두 장르 사이의 차이는 엄청나다. 생텍스는 영화의 독자성을 이해하고 자기 소설을 영화적으로 각색한 몇 안 되는 세나리스트였다. 그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지중해에서 전사하지 않았다면 카메라로 쓰는 이미지와 사운드의 새로운 글쓰기로서의 시네마토히그램의 흐름도 많이 달라졌으리라. 카메라 렌즈야말로 보이지 않는 진실을 담아내는 어린 왕자의 마음의 눈 아니겠는가?

생텍스는 글과 영상을 통해 프랑스인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알리고 정치인들과는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난 대독 항쟁 전략으로서 미국의 참전을 요구하게 된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일찍 참전하였다면 그가 지중해에서 전사하기 전에 독일이 항복하고 그는 조국으로 귀환하여 영화인으로서의 삶을 계속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1941년 12월 7일 일본 제국주의 공군과 해군의 공격을 받고서야 참전하게 된다. 우리의 광복도 그만큼 지연된 것이다. 생텍스를 기리는 프랑스 공화국 법령에 의거하여 1963년 팡테옹에 안장된 어린 왕자 생텍스 그리고 그를 사랑한 인디애나의 어린 왕자 제임스 딘의 영혼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